

# “천직 가진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피어난다”

## 나석정 거사

“부처님은 마음이 열린 분입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부딪칠 텐데 부처님께서는 ‘행복이든 불행이든 따라가지 마라. 흘러가는 강물이고 해를 가린 구름과 같다. 그러니 내가 행복해 하든가, 불행해 하든가, 바로 알아차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행무상 諸行無常’이란 말씀도 하셨습니다. 늘 같지 않다. 이 세상 모든 어려움이나 행복도 다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군인들에게 형편인 나석정(32) 거사, 의정부 포교원 정혜사 3층 법당에서 두 해 남짓 매주 군인법회를 이끌고 있다.

“사홍서원은 네 가지 넓은 서원이란 말인데 현대식으로 풀이하면 비전, 꿈, 희망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나와 남을 함께 위한다는 뜻에서 넓은 홍희를 썼습니다. …… 이번 주에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군복무를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공양을 하면서 잠시 내가 어떤 꿈을 이루고자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법회 마칠 때 늘 나누는 말씀 ‘서로가 있어 살 수 있습니다.’에 담긴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서로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근 차근 법회를 이끌고 마무리하는 품이 푸근하다.

행복과 불행은 흘러가는 강물  
늘 같지 않음을 알아차려야  
사홍서원, 네 가지 큰 꿈과 희망  
서로가 있어서 살 수 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일요일에는 법사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절에는 어린이법회부터 다녔지만, 간절하게 마음공부를 받아들여지게 된 데는 갑자기 몰아닥친 시련 때문이었다고 돌아본다. “고등학교 1학년 한 해 동안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1학년 말이 되면서 마음 가누기 힘이 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가만히 있어도 괴로웠어요. 병원을 찾았더니 정신분열증이라더군요. 약을 먹어도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학년을 올라가지 못하고 휴학을 내고 집에만 박혀 있었어요. 마친 집에 아버지가 읽던 자그마한 문고판책자 <무소유>가 눈에 띄었어요. 제목에 끌려서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한창 마음이 괴로울 때였는데 신기하게도 스님 책을 읽을 때만은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글에 담긴 알 수 없는 독특한 향기를 낼 때까지 스님이 기울어졌을 수고에 늘 고마워합니다.” 집안에 틀어박혀 외로움과 고통에서 헤매기를 여러 해, 스무 살 석정 손을 잡아 끈 사람은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법정 스님이 길상사란 절을 여셨는데 그곳에 가서 네 또래 청년들과 어울리면서 마음을 추스리라고 했다.



삶의 절망속에서 만난 법정 스님의 말씀 <무소유>는 나석정 거사에게 삶의 희망이요, 소중한 에너지가 됐다. 나 거사는 “법정 스님의 법문을 듣는다는 의미 하나만으로도 행복했다”고 피력했다.

“이 사회는 공부 잘하고 변덕한 학교를 나와서 제대로 된 직장에서 잘나가는 사람이 아니면 눈길도 주지 않아요. 병이 시작되자 누구도 제게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았어요. 정신보건센터에 다니면서 외로운 사람이 되어보니까 우리 사회가 외로운 사람들에게 너무나 무관심을 빼지러게 느껴져요. 희망이 없으니 늦게까지 자고 무척주 동물처럼 흐느껴거렸어요. 한번 망가지니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내가 아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길상사 청년회에 한번 나가보라고 하셨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외로워서 갔습니다.” “늑대와 양치는 소년” 이야기가 떠올랐다. 우리는 이 이슬우화를 단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교훈으로만 여기고, 그 이야기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짚어보려 하지 않는다. 너무 외롭고 사람들이 그러워서 그랬을 텐데.

“청년회에도 어느 모임처럼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따뜻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거기 섞여서 이런저런 즐거움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행복도 찾아도 보고 보람도 찾았어요. 그러면서 외로움을 조금조금 덜어냈습니다.” 그때 나그네는 청년 나석정을 참하게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청년이구나 싶어 훈훈하게 바라 보면서 외롭고 답답함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실제와 만나기 어려

세상은 외로운 이에게 눈길도 주지 않아  
너무 외로워서 길상사에 나가  
법정스님 법회 날 정중중중 뛰어다녀  
그 덕분에 자살하지 않고 건강하게

움을 새삼 깨닫는다. “어른스님 법회 날에는 스님이 법문하신다는 의미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서 경중경중 뛰어다녔어요. 스피커를 통해서 들리는 스님 말씀에 힘이 솟아 길상사 가는 일이 여간 즐겁지 않았어요. 이제 군인법회를 매주 진행하다보니까 길상사에는 나가지 못하지만, 길상사에서 받은 소중한 에너지 덕분에 고통 가운데서도 자살하지 않고 이만큼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정은 길상사에 다니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저녁마다 108배를 하며 나무아미타불 염불했다. 그러기를 무려 여섯 해. 그러나 아무리 108배와 염불을 열심히 해도 괴로움을 떨쳐내지 못했다. “그때 저를 엄청나게 혼내면서 산에 다니라고 호통을 치신 분이 계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 일요일만 빼고 날마다 도봉산을 오르내리며 망월사라는 절에 들러 염주 200개를 돌리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찾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미타불을 향하는 마음이 간절해 다른 생각이 들어올 염을 내지 못하더라고요. 그 뒤로 온 마음을 기울여 정성을 다했더니 집착이 덜해졌어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거기 매달려서 움짱

도 못하던 제가,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힘이 붙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나서 몽중가피 夢中加被를 받으면서 고통이 천분의 일로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청화스님이 말씀하신 간절히 부처님께 귀의하는 열매선이 이런 모습일까.

두 해 남짓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길상사로 되돌아와 청년회 반야부장을 맡으면서 살 길을 찾았다. 남보다 늦은 사회생활, 제행후련원에서 땀 굽는 공부를 하고 취직을 했다. 그런데 바쁘고 일이 몰리고 영키면 긴장한 나머지 머릿속이 하얘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바람에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내 물렸다. 잠시 힘들어 하다가 커피를 좋아하는 석정은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 커피전문점에 취직했다. 그러나 또 손님이 물리니까 머릿속이 하얘져서 무슨 메뉴를 만드는지도 모르고 실수를 연발해 또 밀려났다. 살려고 온 힘을 쏟았지만 길이 없었다. 바람 끝이었다. 새로 도전하기가 겁이 났다.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할 수 없이 아버지가 경영하는 병리검사센터에 나가 각 병원에서 혈액·내적·체액·소변·대변 따위 검사물을 거둬오고 가져다주는 일을 하고 있다.

“단순한 일이지만 이 길을 가다보면 분명 새로운 길이 열리리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아무도 제게 괴로움을 주지 않는데도 힘들었어요. 저희 집이 15층이었는데 너무 답답해서 창문으로 뛰어내려야겠다는 생각이 여러 번 났습니다. 저와 같은 환우들을 대할 때 언젠가 이 분들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을 드리고 싶은 곳이 있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요즘 저는 부처님은 ‘이해심, 이해하는 마음 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드리고 싶은 곳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고 했는데 월급은 어떻게 쓰나? “150만원을 받는데 달걀이 50만원은 적립식편드에 넣고 20만원은 주식청약부금을 넣고 있습니다. 몇 만원은 할머니께 드리고, 몇 만원은 의정부에 사는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좋은 일하는 사람들 모임’에 내고, 또 몇 만원은 군법회 간식비에 보태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출구조를 조정해서 노후대비 장기노령보험을 하나 들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용돈하고, 그리고 조금씩 남은 부스러기 돈은 아플 때를 대비해 모으고 있습니다.”

한창 젊은 청년이 어떤 인연으로 군인법회를 이끌고 있을까. “제가 자라고 사는 곳이 의정부예요. 버스과 지하철을 갈아타고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에 가서 청년회 활동을 하다가 문득 의정부 절들이 떠올랐어요. 원래도 절이 많지 않은 곳이지만, 도심에 절들이 쇠락해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어요. 제가 어려서 다니던 절도 중고등학교 법회가 없어지고 이어서 청년회 법회도 없어졌어요. 이쪽 정혜사도 중고등학교 법회가 잠깐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무너졌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청년회법회도 없고, 가족법회와 어린이법회 군법회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부 불교가 활기를 찾는데 작으나마 도

## 수풀림 천/연/감/물/염/색

# 대나무숯베개

supullim bamboo charcoal pillow

## 일곱가지 대나무숯의 효능이 님의 숙면을 책임집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특허숯1.3kg 내장  
※겉피, 안감 청도군 감물천연염색천 사용

수풀림대나무 숯베개는 지리산 자락 청정지역의 왕대나무를 채취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 개발한 숯제조기술로 1000℃ 이상 고온에서 소성한 대나무숯 1.3kg을 넣어 효능을 극대화 하여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겉감과 안감 모두 천연감염색으로 유명한 청도군의 특허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천연감염색은 아토피에 탁월하다는 연구 분석이 나와 많은 분들이 천연감염색을 찾고 있습니다. 포근함을 유지시키며,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굴피 나무 껍질을 300g 넣어 빠른 피로회복과 목디스크 예방 및 개선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풀림대나무숯베개는 100% 국내산으로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1개 110,000원 / 2개 세트 20만원

**제품신청 080-300-1080**  
http://www.supullimbed.co.kr

■입금계좌 : 농협 121078-56-121535 (예금주: 류정애)

**수풀림 대나무숯베개의 효과**

- ✓ 대나무숯에서 발생하는 원적외선은 혈액순환을 도와 피로회복을 빠르게 합니다.
- ✓ 잠 잘 때 흘리는 땀이나 침 등의 수분을 흡착하여 늘 뽁뽁뽁한 상태를 유지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베개 주변의 전자파를 흡수 중화시키는 차폐 효과로 전자파 걱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 ✓ 직접 머리에 닿는 겉감과 안감 모두 청도군 특허제품인 천연감염색(특허 NO.10-0852806)천으로 제작하여 아토피예방과 숙면을 유도하는 건강베개로서 기능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 ✓ 너무 딱딱하지 않게 굴피나무 껍질을 넣어 알맞은 경도로 제작하여 빠른 피로회복과 목디스크 예방 및 개선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두통/불면증/아토피 ▶선물용/혼수용 ▶만성피로/목디스크 ▶수험생/직장인

원적외선

습기흡수

항균

수분흡착

냄새제거

전자파차폐

아토피



의정부 포교원 정혜사에서 2년동안 군인법회를 열고 있는 나석정 거사는 법정 스님의 말씀을 군복자들에게 자주 소개한다.

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길상사를 떠나 의정부로 돌아와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어요.” 참 진리를 전하려는 에너지가 나석정, 일요가족법회에 나오는 불자가 2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절 ‘의정부 포교원 정혜사’를 찾아가 군인법회를 돕는다. 부처님은 진리를 전하러 떠나는 제자들에게 돌도 말고 꼭 흔자서 가라고 했고, 법정 스님도 후학들에게 배웠으면 반드시 전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마음에 새긴 법정 스님 가르침

“일은 생활 방편 아닌 목적이며 삶 그자체 궁지갸고 전심전력 꾸준히 하는 일이 천직 일을 통해 아름다운 사람관계를 이뤄야”

중하지 않은 직업은 없음을 알았기에 평온하고 행복해요. 결국 길상사에서 얻은 소중한 인연에 맞물려, 이어지는 의미들을 씩씩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길상사에 다니면서 큰 깨달음은 없었지만, 거기서 배우고 익힌 바탕 위에서 제 나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어요.” 낮 놓고 듣다가 문득 떠오른 “저것은 벽 /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 그때 / 답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 .....답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도중환시 ‘답쟁이’. 나석정 거사가 모든 직업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데는 법정 스님 책 <새들이 떠난 숲은 적막하다>에 나오는 ‘직업인가 천직인가’라는 쪽지 힘이 컸다. 그 쪽지는 이렇게 열린다. “무슨 서류를 만들 때 직업란을 두고 나는 망설일 때가 더러 있다. ....불교승단에 소속되어 있는 몸이라 하는 수 없이 편의상 ‘승려’라고 쓰긴 하면서도 석연치 않다. ....승려가 과연 직업이 될 수 있을지 늘 가우뿔거리었다.”

“어른 스님은 그 쪽지에서 윤오영이 쓴 ‘방망이를 깎던 노인’ 이야기를 하세요. 방망이를 깎아달라고 주문한 손님이 차 시간에 쫓겨 더 깎지 않아도 좋더라며 대중 달라고 하니가 다른데 가서 사라져 안 팔겠다고 내뱉는 고집쟁이 영감님이야기인데요. 스님은 비록 그 영감님이 길가에 앉아 방망이를 깎고 있을 망정, 자기 일에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된 데는 일이 생활 방편이 아니라 목적이며 삶 그 자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사람사회 균형과 조화를 위해 저마다 몫이 필요한 일이 주어졌고 다며, ‘천직을 가진 사람은 꽃처럼 날마다 새롭게 피

어나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날로 성숙되어간다. 자신이 하는 일에 애착과 긍지를 지니고 전심전력을 기울여 꾸준히 하면 그 일이 바로 천직이 아니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마치 스님께 직접 들은 듯이 귀가에 생생해요.”

스님은 그 쪽지 끝에 이렇게 말씀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은 그것이 한낱 생계를 위한 방편이나 수단이나 사는 소재임을 알아야 한다. 그 일을 통해 아름다운 사람관계를 이루고 자기 자신을 알차게 만들어야 한다. 그 사람이 그 일을 하지만, 또한 그 일이 그 사람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니 남을 위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모두가 내 일이고 내 사는 몫이다.”

“제가 길상사에 다니고 몇 해 되지 않아 길상선원에 몇 달 다녔는데요. 아는 누나도 함께 참선을 하고 있었어요. 하얀겨 결계 날이었는데 그 누나하고 선원 둘레 꽃밭에 쪼그리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침 어른 스님이 지나가시면서 제게 말씀을 한 마디 건네셨습니다. ‘이야기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셨구나.’ 지금도 그 말씀을 하시던 스님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그때는 스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말이 많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지나서 곰곰이 보니까 ‘마음이 생각이 묶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말을 할 때 해야 하겠지만 생각에 묶여 집착에서 나온 말은 분명 번뇌가 되겠지요. 어른스님 말씀하신 진의는 알 수 없지만 스님 마음속에는 생각을 잡는 말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스님은 부모와 자식이 갈등을 할 때 스님은 언제나 자식 손을 들어줬다. 제 삶은 제가 선택해서 살아야 한다면서, 꽃을 보는 청춘에게 말을 건네심은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꽃에 팔려있는 청춘을 향한 정경가슴이 아니었을까. 온 누리가 파르라니 싱그러운 오월이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고영배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명예교수

5월의 눈꽃

5월은 푸르름의 대명사이다. 주변 어느 곳이던 눈길이 닿는 곳이면 녹색의 향연이 펼쳐진다. 원근을 가리지 않고 연초록은 시계(視界)를 훌쩍 넘어서고 만다. 오욕에 찌들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담아내기 버거운 광활한 녹색 천지이다. 저 향연에 취해 잠시라도 갖은 시름을 떨치지 못한다면 스스로 인간계를 탈출한 축생 정도의 사고력이 아닐까 한다.

저 창공도 온통 그 모양이다. 이따금 그곳에는 희한한 연주자들이 공연하고 있다. 지상에서 볼 수 없는 다른 모습이다. 아들아들한 사금과 리 모양의 구름이 생긋 웃고 지나간다. 그런가 하면 태석태석하고 윤기 잃은 이질감미 구름이 불쑥 나타나기도 한다. 저 하늘의 조화라니.

그들은 외락 바람을 일으키기도 한다. 구름과 바람은 모종의 뱅글뱅글하는 소리도 없이 이 푸른 대지에 눈을 뿌린다. 그 눈은 추워서 주머니에 손을 꼭 집어 넣어야 하는 눈도 아니다. 그렇다고 옷깃을 세우거나 두툼한 외투까지 꺼내 입어야 하는 눈 또한 아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대지의 푸르름을 앗아가지나 않을까 염려스러운 눈일 뿐이다. 이런 상념은 기우이다.

음풍이 몰고 온 눈은 온갖 시름을 준다. 출근길 교통격정, 난방격정, 낙상격정 등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격정들. 그러나 오월의 눈꽃은 순한 양과 같다고 할까. 발길에 닿아도 밟는 자체가 조심스럽기까지 하다. 계곡에 쌓인다 해도 무슨 동맹이라도 하듯이 풍뎉어붙어 강인함을 자랑하지 않는다. 지난해의 낙엽과 쉽게 동화되기도 한다. 행여 새순이 동상 피해가 있을까 빗겨 앉는 여유도 지닌 낙화이다. 요란하게 존재의 오고 감을 알리려고 법석을 떨지 않는 모습은 가히 군자의 도를 오래 전에 익혔던 게 분명하다. 가뭇없이 사라지는 모습에서 군자의 도가 확연히 드러난다.

연못에 맺도는 낙화는 조각배가 되기도 한다. 수면 위에 작은 물결이 일면 웬 물여울이 치는 가 하여 가로 가로 쯤쨌렁치는 모습은 재치훈련을 받은 훈련병 같기도 하다. 그들에게 전복이란 말은 당치도 않다. 왜냐하면 가볍기 때문이다. 미처 대처하지 못하면 수초에 의탁하여 정박하기도 한다. 아마 저리 가벼운 꽃잎은 이 춤을 모를 일이다. 이 춤은 육신꾸러기가 모여 사는 인간세상의 불련함일 터이니.

불련듯 고려시대의 문학 유산 ‘청산별곡’의 노랫말이 스친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멀어리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누가 이 시심을 깰 것이며, 누가 이 시심을 앗

아갈 수 있단 말인가. 어느 포악한 사람이라도 깰 수도 없으며, 어느 불한당이 때지어와 빼앗아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오직 마음 작용에 의해 깨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했을 뿐이다. 세상에는 아무런 목적 없이 헛일하는 샌치고 에멜무지로 한 일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있듯이 그런 바람없는 마음으로 살수는 없는 일일까.

루소는 ‘에밀’에서 ‘자연은 인간을 선량하게, 자유롭게, 또 행복스럽게 만들었지만 인간은 제 손으로 인간 자신을 악하게, 부자유스럽게, 또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루소가 주장하는 것은 문명의 질식으로부터 인간을 구출하는데 귀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가만 갈수록 자연의 본성이나 본질과는 너무 동떨어진 곳에서 방황하고 있다. 오월의 눈꽃에 눈길이 가는 사람이라면 인간의 본성을 살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이다. 그 여유는 자연스럽게 자연애호사상의 원원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바람 없는 마음으로 살 수는 없을까 마음이 행보다 앞서면 인생 불균형 인간도 정품과 불량품이 있다

사람을 평할 때 3가지 유형으로 말하기도 한다.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라고 한다. 사물로 표현하자면 상근기는 스스로 잘 타는 자연성 물질이다. 중근기는 불에 가까이 대면 타는 가연성 물질이다. 그리고 하근기는 불에 가까이 가도 타지 않는 불연성 물질이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대로야 상근기가 되길 바라지만 행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보니 생활이 항상 엇박자로 가기 마련이다. 너 나 할 것 없이 잘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항상 마음이 행 보다 앞서가는 데서 오는 불균형이다. 불연성 물질이야 말로 불 가까이 가도 타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교육현장에서 자주 겪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리저리 구스르고 타일러 봐도 ‘쇠귀에 경 읽기’라는 말과 같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직면할 때마다 좌절이 따르기 마련이다.

물건을 고를 때 정품인지 불량품인지 세심하게 고른다. 인간에게도 정품인간이 있고 불량품인간이 있다. 자기성찰이 따르는 사람을 정품인간이라 하고, 자기성찰이 미진했을 경우 불량품인간이라 하는 것이다. 청산에서 머루, 다래 먹고 사는 사람에게 무슨 출세나 부귀 따위는 있을 리 만무하다. 그에게는 오월의 눈꽃이 반라자로서 길동무가 되고 말동무가 될 수 있다.

Advertisement for medicinal ginseng products. Title: '당뇨가 있으십니까? 갱년기 증상이 있으신가요? 부인병이 걱정되시나요?' (Do you have diabetes? Menopausal symptoms? Are you worried about women's health?). It promotes '산삼' (mountain ginseng) and '효능의 연삼(軟蔘)' (beneficial soft ginseng). Includes an image of a ginseng root and several product boxes.

Advertisement for lighting products. Title: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Sachal Yeondeung and Wires for Dharma Hall). It features images of traditional Buddhist lamps and modern LED lighting fixtures. Text: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With the attitude of a novice, we exert our best efforts as a Buddhist company.)

Advertisement for lighting products. Title: '전선 간격' (Wire Spacing). It lists various wire and cable specifications: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It also lists 'SMD LED전구(정품) 220V 6' and '공단연등(고리용)' (Industrial lamps for rings).